



■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논평 및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08.09.)

8. 10(목) 오전 11시, 교육부의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 ▲ 지난 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8월 10일(목)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함.
-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발표 직후인 10일(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교육부가 공지한 수능 개편시안 공청회 일정(8월 11일(금) 서울교대 공청회를 시작)에 맞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계획임.

지난 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0일(목)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8월 31일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8월 10일(목) 11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 일정에 따른 의견 개진 등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촉구하기 위한 향후 일정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능 개편 시안 발표는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한 예비 작업입니다. 따라서 시안의 내용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담보하는 방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을 개선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능 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입장을 기본으로 교육부가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의 시안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이후 사교육걱정은 교육부 공청회(8월 11(금) 서울교대 공청회를 시작) 등 각종 채널을 통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 해소를 위해 새정부가 발표해야 할 첫 번째 교육과제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논평 및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8월 10(목) 오전 11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8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개진 및 향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7. 8. 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11)